

K-POP시대의 새로운 실용음악 보컬 교육 개념에 대한 제안

오한승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계열

A Proposal for a New Practical Music Vocal Education Concept in the K-POP Era

Han-Seung Oh

Division of Applied Music,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요약 본고에서는 K-Pop의 전성기를 맞이한 한국의 실용음악 보컬 교육에서 대중음악 시장의 변화와 그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보컬 교육 개념의 필요성과 이를 실제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려 하였다. 이는 필자의 교육 현장 경험에 근거한 것이며, 실용음악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의 초기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가창력만으로는 대중가요 가수가 자신만의 차별성과 대중적 성공을 거두기 힘든 상황에서 기존의 도제식 교육의 한계를 넘어 자신만의 스타일과 창법을 먼저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래그머티즘 미학자인 슈스터만의 스타일 이론을 가창에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보컬 튜닝' 및 '보컬 스타일링'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런 새로운 개념을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보컬 학생들은 프로듀서의 관점으로 스스로 자신이 추구하는 장르에 필요한 보컬 스타일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he need for a new vocal education concept that meets the changes in the popular music market and the trend in practical music vocal education in Korea, which is in the heyday of K-Pop, and a method that can reflect it in the curriculum. This i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author's educational field, and can be regarded as an early study of a methodology that can be reflected in the practical music curriculum. When it is difficult for popular singers to achieve their own differentiation and popular success with only singing ability, they must first develop their style and singing method beyond the limits of the existing apprenticeship education. To this end, Schusterman's style theory, a pragmatic aesthetician, was applied to singing and analyzed. The concepts of 'vocal tuning' and 'vocal styling' are presented. By applying this new concept to the curriculum, vocal students should be able to develop the vocal style necessary for the genre they pursue independently of the music producers' point of view.

Keywords : Practical Music, Pop vocal, Pragmatic Aesthetics, Style, Singing Method

1. 서론

우리나라에 실용음악과가 개설된 이래 많은 발전과 그 파급력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부수적인 실용음악 교육업도 발전해온 실정이다. 학문적으로는 클래식 성악

가창에 대비하여 '실용음악 보컬'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실용음악 석사 과정도 보편화되어 보컬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도 지속적으로 발표되며 보컬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4년제 대학교 및 전

*Corresponding Author : Han-Seung Oh(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email: ohs@dima.ac.kr

Received July 12, 2023

Accepted September 1, 2023

Revised August 7, 2023

Published September 30, 2023

문대학교에 실용음악 교육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이래 2000년대 초반 R&B 장르가 대중가요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 비바바, 거미, 이정 등 실용음악과 출신의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런 경향이 가속화되었다. 즉 '체계적인 보컬 교육의 결과물이 뛰어난 가창력'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듯한 분위기가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실용음악과에 지원하려는 입시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기악이나 작곡 전공과는 확연히 다른 경향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실용음악과 입시 지원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2010년대 후반 이전까지 이 경향은 지속되었다.

이렇게 체계적인 실용음악 보컬 교육을 통해 전반적으로 늘어난 보컬 '실력자'들을 활용한 방송프로그램들도 2010년대에 많이 유행하였는데, 인지도가 높은 가수들과 일반인 실력자들이 함께 노래하는 <듀엣가요제(2016~2017)>와 <판타스틱 듀오 1, 2 (2016, 2017)>, 기존 가수들과 일반인들의 모창 경연인 <히든 싱어 1~7(2012~2022)>, 실력자와 음치를 립싱크를 통해 시각적으로 구분해 내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 1~10(2015~2023)> 등 수많은 인기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인기를 누렸다[2].

이런 TV프로그램들을 제작하기 위해 많은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일반인 실력자'로 해당 제작진의 연락을 받고 출연하였으며, 정식 데뷔를 하지 못한 예비 가수들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였다. 상기 방송프로그램들은 일반인 신성자들의 가수에 대한 열망과 이에 대비되는 녹록지 않은 현실의 삶을 대비시키며, 그들의 삶의 애환을 그들의 드라마틱하고 폭발적인 가창력이나 '고음 수행 실력' 등과 함께 부각시키며 방송 소재로 활용하고 이를 서서히 소진시키게 되었다. 다시 말해 실용음악과를 졸업하던 졸업하지 않던 간에 이처럼 TV에 넘쳐나는 가창 실력자들의 '과잉'은 역으로 '가창력이 프로 가수로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대중음악 산업의 주축인 음반 제작자들의 선택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는 실용음악 교육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전문대학 교육과정에서는 2014년부터 NCS를 도입하여 산업체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이제는 4년제 실용음악과에서도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습을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3]. 따라서 최근 대중음악 산업트렌드에 맞는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새로운 교과목 개설에 맞는 교육목표와 교육개념이 필요한 상황이다.

2. 기존 보컬테크닉 개념의 한계

최근 음반제작자들의 경향성은 크게 두 방향으로 극명하게 나뉘는데,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음반 기획사들은 이렇게 방송에 출연한 실용음악과 졸업생 또는 유튜브에 활발하게 가창 동영상을 올리는 실력자들과 계약을 하려는 경향인 반면, 중규모 기업 이상의 기획사들은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는 실력자들을 기피하고 신선한 '진짜 신인'을 새롭게 찾아 나서는 상반된 경향성을 가지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K-Pop의 글로벌한 성공과 함께 한국 대중음악 시장의 급격한 양극화 현상이었다. 기존 매체인 공중파 채널과 종편 채널은 자신들의 확실한 방향성을 정한 듯 보였다. 특히 일부 보수 매체로 인식되는 일부 종편 채널이 황금시간대에 트로트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이 대성공하여 임영웅과 같은 스타를 탄생시키면서 TV를 시청하는 세대와 시청하지 않는 세대로 양분되면서 대중음악 시장의 메인스트림이 나뉘게 되었다.

유재하와 신승훈의 계보를 이어오던 한국 대중음악의 큰 축인 발라드 장르는 R&B와 현대적인 포크(Folk)에 대중적으로는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체계적인 보컬 교육의 토대이자 결과물인 드라마틱한 가창력과 실력을 아직도 실용음악과에서는 떠받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연예술 분야인 뮤지컬 관련 학과들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클래식 성악과와 뮤지컬 학과를 비교해 보면 실용음악과와의 차별화된 지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4].

클래식 성악과 뮤지컬 보컬이 대중음악 또는 실용음악 보컬과 다른 점은 바로 '레퍼토리'이다. 클래식 성악은 주로 오페라 곡들 또는 오페아의 아리아 중심으로 공연된다. 뮤지컬은 뮤지컬 자체 공연 또는 뮤지컬의 킬링 넘버 중심으로 공연되고 녹음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20세기 이래로 새로운 오페라가 더 이상 창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뮤지컬의 메카인 미국에서도 새로운 뮤지컬 히트작들은 좀처럼 나오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발라' 또는 '그날들'처럼 창작뮤지컬이 명맥을 잇고 있기는 하지만 음악적으로는 새로운 넘버들이 계속 나오기는 힘들다는 것이 바로 한계이다[5].

클래식 성악 전공자들의 보컬 교육처럼 뮤지컬에서도 기존의 킬링 넘버 중심으로 보컬 교육이 답습되고 있으며 보컬 테크닉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방식과 뉘앙스에 충실하게 이런 교수법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 뮤지컬 제작자들이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고자 대중가요 보컬의 뉘

양스와 표현기법을 적용하려고 시도하고는 있으나 기존 뮤지컬 배우들에게 형성된 고정된 창법과 테크닉, 그리고 대중가요 창법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티켓 파워를 위해 그동안 인지도 기반으로 쉽게 주연을 맡게 된 일부 아이돌 그룹 출신 대중 가수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이런 경향성이 쉽게 뮤지컬계에서 없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중가요는 어떤가? 국내외에서 수많은 신인 가수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음원 앱(애플리케이션)의 큐레이션 기능을 통해 대중들이 자신의 기호에 맞는 음악들과 가수들이 계속 추천받으며 새로움을 누리며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음악들에서 '보컬'은 곡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사운드'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클래식이나 뮤지컬 곡들과는 달리 다양한 '필터링' 또는 '공간계 이펙트'를 통해 '질감'과 '거리감'의 변화 또한 감정의 차이와 뉘앙스로 세분화되어 표현된다[6].

이제 진정으로 대중가요 가수는 '드라마틱'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다시 왔다고 볼 수 있다. 조동진의 '제비꽃', 장필순의 '어느새'처럼 '분위기'의 음악, '무드(기분)'의 음악이 실용음악 보컬의 새로운 '다양성'의 코드와 함께 돌아온 것이며, 이런 시대에 대학 실용음악 교육은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다시 바쁘게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재도입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성이라는 코드는 보컬테크닉 중심에서 창법 중심으로의 이동을 뜻하며, 대중가요 가수들의 창법은 '스타일style'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

3. 스타일 개념의 도입

가수들의 창법, 즉 가창 스타일을 논하기 위해 우선 스타일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타일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① 자세. 모양. 풍채.
- ② 복식이나 제품 등의 형. 디자인.
- ③ 양식. 표현 형식. 문체.

여기서 ②와 ③의 경우는 사람이 만들거나 창조해내는 물건이나 예술적 결과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스타일의 어원은 라틴어 '스틸루스(침필:stylus)'로서 로마인들이 글을 쓰거나 새길 때 쓰는 보

촉한 도구를 의미하다. 이 도구를 이용하여 글을 쓰고 새기는 방식을 전하는 것이 스타일의 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신체를 통한 동작과 기교를 암시하기도 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동작과 기교의 방식은 그 자체의 내적 가치를 위해 추구되며 소중하게 다뤄지게 되었다. 이때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도구를 사용하거나 몸의 근육을 이용한다면 이는 창조성이 신체적somatic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인 현대 미학자인 리처드 슈스터만은 스타일의 5가지 대립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7].

- ① 가치평가적(evaluative) <--> 묘사적(descriptive)
- ② 총괄적(generic) <--> 개인적(personal)
- ③ 의식적(conscious) <--> 무의식적(unconscious)
- ④ 자발적(voluntary) <--> 비자발적(involuntary)
- ⑤ 영속적(permanent) <--> 상황적(contextual)

위와 같은 슈스터만의 스타일 구분은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예술 제도에 올라탄 기존 예술의 양식을 판단할 때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삶의 예술, 그리고 대중 예술에 이르기까지 스타일과 관련된 통합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대립적으로 구분하기는 했지만 각각 서로 배타적이지는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이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아티스트를 고려할 때 우선 그 사람의 작품들이 속하는 장르를 먼저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그 장르 내에서 해당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고려하는 과정을 머릿속에서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미술에서 인상파의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등의 분류와, 음악에서의 바로크 스타일과 바로크, 헨델, 비발디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타일리시stylish 하다'는 표현은 경칭적이거나 가치평가적인 구분으로서 누군가가 옷 입은 스타일을 칭찬할 때 사용하다. 하지만 거의 언제나 '스타일리시'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장 계열의 패션과는 달리, 힙피 스타일이나 힙합 스타일의 패션은 상황에 따라 스타일리시 할 수도 있고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도 있다. 작곡가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코드로 정제되고 계산된 화성의 흐름은 관현악 오케스트라 또는 영화음악에서 매우 정돈된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재즈 음악에서의 즉흥연주는 무의식적이며 즉각적인 음악 창조 기법으로서 새로운 인상impression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삶에서의 일상과 예술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어떤 스타일을 창출해 내며, 이 과정에서 더 개성적으로 구체화된 스타일은 자기 자신을 구현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셀프 스타일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자신만의 스타일 형성과정은 모두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비자발적이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스타일이 형성되는 사람이 있고, 자발적이면서도 영속적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보통 사람이 땀이 있거나 옷을 입거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것과는 달리 예술의 영역에서는 특정 예술 장르, 즉 미술, 음악, 문학, 공연예술, 스포츠(예술의 영역과 연결되는 피겨스케이팅, 리듬체조, 싱크로나이즈드 수영 등)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 연마하고 일정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경칭적, 총괄적, 영속적인 측면에서의 스타일 형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술가가 예술가로서 제도권의 승인이 아니더라도 대중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기교에 도달했다고 해서 총괄적 스타일에 더해 개인적인 스타일이 저절로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흔히 말해 기교는 좋으나 개성이 부족한 예술가인데, 이 경우 새로운 예술적 비전과 가치를 제공하는 예술가라기보다는 기존의 예술을 답습하면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잠재예술을 저변을 확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술가로서의 지향점은 결국 총괄적인 예술 기교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만의 개성적인 스타일이 구현되는 셀프 스타일라이제이션이 완성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슈스터만이 제시한 위의 5가지 스타일 개념 중 가수의 스타일과 관련된 앞의 세 가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보면 다음과 같다.

3.1 가수에 대한 가치평가와 묘사

미학적으로 특정 가수의 노래에 대해 평가하거나 묘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음식의 맛을 보고 그 맛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예를 들어 달고 짜고 맵고 쓰고 신 맛이 다양하게 조합되는 음식의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가수의 노래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들이 필요할 것이다.

- 가수의 목소리의 특성 : 미성과 탁성(허스키), 그리

고 이 중간의 어느 단계나 지점

- 가수의 음역 : 테너와 바리톤, 소프라노와 알토 등의 선천적 음역 또는 후천적 고음역 가창 능력
- 가수의 음악적 표현 방식 : 박자 기준 정확(straight) 하거나 느슨함(laid back)
- 가수의 성량(목소리의 크기/볼륨)
- 노래의 정서적 느낌 : 깔끔함, 아련함, 달콤함, 로맨틱함, 포근함, 세련됨, 모던함, 절제됨, 거칠, 직설적임, 부드러움, 예리함, 차분함, 장엄함, 윙크롭 등

그런데 위와 같은 세부적인 항목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어떤 기준의 가치평가를 내릴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TV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각종 가요제에서 주로 전통적인 클래식 성악 창법의 영향을 받아 가수의 음역과 성량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다수의 심사위원이 노래를 가치평가하는 경우 이를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음역과 성량이 가창 실력을 점수화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노래를 평가하는데 주로 이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음역과 성량 이외에 자신만의 음악적 표현이나 정서적 느낌을 낼 수 있는 것 또한 특정 가수의 가창력이나 실력일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2 가수의 총괄적 스타일과 개인 스타일

클래식 성악 발성은 오페라 발성 또는 벨칸토 발성으로 불리며 이 장르를 부르는 모든 가수들은 유사한 방식과 교수법으로 기교를 배우고 습득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방식은 일대일 도제식 교육이며 스승의 교육방식을 제자가 유사하게 습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교뿐만 아니라 표현법까지 내재되어 습득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총괄적인 스타일은 전형적인 클래식 성악 스타일이지만 개개인의 스타일은 달라질 수 있지만, 워낙 특징적인 발성 방식으로 인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들은 성악가들의 목소리만 듣고 이 가수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반인들은 특정 성악가의 개성을 중시하기보다는 이 가창 스타일이 주로 표현하는 드라마틱함, 극적인 슬픔, 번뇌, 절망, 환희, 카타르시스 등의 정서적 감상을 중요시하며 이는 주로 무대 공연에서 관객으로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클래식 성악 발성의 레가토(legato)는 매우 총괄적이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8].

이에 반해 대중음악은 팝, 록, 재즈, R&B, 힙합 등 다

양한 장르와 이의 결합이 늘 이루어지며 장르의 구분은 음악의 비트, 사운드와 분위기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게다가 특정 장르의 지배적인 발성 방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 스타일 보다는 개인 스타일이 중요시되며 그만큼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게 된다. 마이클 잭슨은 그만의 개성으로 장르를 초월한 팝의 황제가 되었으며, 비틀즈 또한 시대를 초월한 록 밴드로서 역사에 길이 남게 된 것이다.

3.3 가수의 의식적 표현과 무의식적 표현

가수가 노래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지와 감정의 차원이며 이는 노랫말과 음악이 결합됨으로써 청자에게 전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수가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자신만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 및 장르에 따라 큰 틀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밴드 음악을 추구하는 가수의 경우 창작과정과 음원 녹음 그리고 공연에서 늘 타인들과의 공동 작업 상황에서 진행되게 되며 이 결과물인 음악은 공동 작업자들의 의식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창작된다. 이에 따라 가수의 가창 결과물 또한 밴드의 색깔에 일관성을 갖도록 표현과 색깔이 맞춰지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의식적 차원에서 스타일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큰 틀의 의식적인 스타일화가 결정되게 되면 그 안에서 가수는 반복적인 연습과 내재화 과정을 거쳐 이를 개인화하게 되는데 이를 무의식적 스타일화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가수들은 다른 모든 기예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과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는 감각을 발달시키려 노력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방향은 바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의식이 아닌 무의식의 차원에서 몸이 스스로 예술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논의하려고 한다.

4. 보컬 튜닝 및 스타일링

우리의 마음, 즉 예술적 동기는 '자기감수성'과 '근운동감각적 지각'을 통해 예술적 표현으로 구현된다. 슈스터만에 의하면 "자기감수성(proprioception)은 내부의 감각과 그 결과 나오는 사람의 몸과 몸 부분의 자리, 자세, 무게, 위치, 균형 그리고 내적 압박에 대한 인식에 관련한다."고 정의된다. 또한 "근운동감각적 지각(kinaesthetic

perception)은 그러한 내적인 지각된 느낌에 더 특정하게 관련하고 그 결과 나오는 움직임에 통한 자세적, 위치적, 압박적 그리고 평형적 변화 인식에 관련한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감수성'이라는 것을 메타인지적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예술가들의 특별한 자기 감수성과 그들의 퍼포먼스 또는 작품과의 연결고리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자기 감수성'과 '근운동감각적 지각'을 합쳐서 이를 '근(육) 지각 감수성'이라고 표현하는 개념을 제안하려고 한다. 자신이 어떤 노래에서 그 곡의 감성에 맞게 목소리 톤과 테크닉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성과 몸을 정교하게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신의 몸과 근육을 노래하기 좋은 악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컬을 '튜닝tuning'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창을 스타일링 하기 위해서는 보컬튜닝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메타인지적으로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느낌으로 스스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컬스타일링이란 '보컬리스트의 타고난 목소리의 특성을 극대화하여 추구하는 음악 장르와 목소리의 매칭 가능성 탐구하고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은데 이는 기존의 점진적인 계단식 보컬 역량의 향상을 의미하기보다는 결점을 진단하고 파악하여 교정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는 공부하는 학생이 자신의 공부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과 비슷하다.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의 이런 '스스로 학습하기', '스스로 개선하기'의 방식은 기존 보컬 교육에서 기본기로 무조건 발성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적 관점이다.

그동안 실용음악 보컬과 관련하여 주로 쓰던 개념은 '보컬트레이닝'과 '보컬디렉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더해 위에 언급한 세 가지 개념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2가지 개념에 추가적으로 2가지 개념을 더하면 다음과 같이 총 4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보컬 트레이닝 - 호흡, 발성 중심의 노래 실력 향상 과정
- ② 보컬 디렉팅 - 음원 프로듀싱의 보컬 녹음 과정에서의 지도
- ③ 보컬 튜닝 - 음정, 악기 교정 중심의 디테일한 노래 향상 과정

④ 보컬 스타일링 - 음악 장르와 목소리 톤, 표현 중심의 향상

위의 ①, ②는 기존의 보컬트레이닝과 보컬디렉팅을 의미하며 ③, ④는 본고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개념인 보컬튜닝과 보컬스타일링을 나타낸다. ③의 보컬튜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노래가 자연스러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서 ④의 보컬스타일링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대중음악의 다양한 프로듀싱 스타일과 그루브groove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개인 고유의 개성과 톤 컬러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성 중심의 보컬트레이닝보다는 다음의 세 요소들이 더 선행적으로 보컬튜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노래의 안정성stability
- ② 톤 밸런스tone balance
- ③ 음정intonation

위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보컬튜닝이 순조롭게 완료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수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방향으로 지도가 이루어지게 되며 자신의 음악성만큼 노래가 스스로 교정되고 향상되는 과정이 시작되게 될 수 있다. 보컬튜닝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음악성 및 근지각 감수성(자신의 몸과 근육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느끼고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메타인지적으로 몸을 잘 느끼기 위해서는 늘 몸이 이완된 상태여야 하며, 좋은 컨디션 및 평온한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 스트레칭의 생활화, 건강관리, 목 관리, 코 질환 치료 등 보컬 교육에서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던 부분들을 점검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컬스타일링은 보컬트레이닝처럼 체계적인 단계를 거치기보다는 즉각적인 보컬튜닝의 과정을 우선하는 것을 말한다. 튜닝 과정으로 호흡, 발성의 문제점을 최대한 단기간에 속성 교정하고 자유롭게 노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에게 내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교정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눈에 띄는 노래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셀프 스타일링이 가능한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은 어떤 목표 기간이나 목표 상태가 없이 막연하게 지속적으로 보컬테크닉이 향상되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보컬 트레

이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노래하는 사람이 보컬테크닉이 좋으면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보컬스타일이 갖춰지는 것은 꼭 발성이 테크닉적으로 뛰어나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고음역을 아직 잘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저-중-고음역에서만이라도 자유롭게 노래하다면 노래가 엄청나게 안정적이고 좋은 톤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며, 조만간 최고음역에도 도전할 마음과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각자 자신이 위치한 레벨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창법'이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창법이 안정적으로 반복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테크닉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인 방법론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보컬 튜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호흡에 있어서 어떤 범주와 기준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중가요 가창에서의 호흡은 클래식 성악의 호흡법을 차용하거나 복식호흡이라는 막연한 용어를 통해 설명되곤 하였다. 하지만 더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호흡의 개념과 교수법의 정립을 위해서 공기의 '압력'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래를 하기 위한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압력 조절이기 때문이다. 이 압력을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호흡을 마시는 양(들숨의 양)이며 이것이 소리 낼 때 목의 긴장도를 줄이는 핵심 요소이다.

5. 보컬 튜닝의 적용 방식

본고에서는 필자가 그동안 보컬 수업시간에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경험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정리된 교수법을 중심으로 보컬 튜닝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① 음의 시작 : 호흡을 70~80% 범위 내에서 편하게 사용해야 한다. 호흡을 80% 이상으로 들이쉬게 될 경우 내부압력이 너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저항성이 올라가며 몸과 목 주변이 경직되어 클린 어택 clean attack(깨끗하고 선명한 음의 시작)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진다[9]. 클린 어택은 가장 기본적인 노래의 시작 방법으로서 이 기술이 기준점이 되어야 좋은 소리와 톤, 정확한 음정이 튜닝되게 된다.
- ② 발성 : 적당한 고음역의 위치에서 중저음을, 다시 말해 '밝은 톤 + 연구개가 열린 상태'로 노래해야 한다. 현대 대중가요는 어두운 톤을 피하는 경향성

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밝으면서 벨런스가 좋은 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성대가 위치한 후두의 상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③ 공명 : 앞쪽 두성 / 마스크(얼굴 표면)에 집중하여 노래해야 한다. 앞서 ②번과 같은 방식으로 발성을 했을 때 생기는 결과물이 이 공명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발성과 공명은 별개가 아니라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기도 하다.
- ④ 톤 : 하이-미드-로우 벨런스가 좋은 톤을 만들어야 하는데, 마이크 사용 시(공연/녹음) 가장 가깝게 앞쪽으로 붙어 나오는 소리가 베스트 톤으로 보면 된다. ②와 ③이 완성되면 그 결과로 ④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 ⑤ 그루브groove : 반주(MR/밴드 합주)보다 아주 조금 노래가 앞서가는 기분으로 부른다. 비트에 너무 정확하게 노래를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노래가 무겁거나 뻗뻗해진다.
- ⑥ 디션 : 자음 발음은 혀끝으로만 가볍게, 빨리, 정확히, 모음 발음은 턱에 힘을 빼서 조금만 떨어뜨리고 조음해야 한다. 자음의 마찰음, 파열음, 파찰음 등이 잡음(노이즈)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s-, ss-로 시작하는 '치찰음'이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하지 않은 딱 필요한 만큼 발음되는 것이 좋다.

6. 보컬 스타일링의 방법론

앞서 제시한 보컬 튜닝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노래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지도하게 되면 학생들은 특정 장르가 아니라 곡의 다양한 템포(빠르기)와 리듬 패턴에 적응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컬 스타일링이란 교수자가 학생들을 자신의 경험에 따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성과 선호 장르에 맞게 스스로 연습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보컬 튜닝을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학생들의 노래가 자연스러운 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음악적인 차원의 지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악적 표현 측면에서의 스타일링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감정선은 우선 곡 전체의 감정 수준(곡의 주제, 분위

기, 편곡 방식)에 맞게 큰 느낌을 잡고, 디테일은 세부 가사의 내용을 표현하도록 한다.

- 노래를 프레이징할 때(프레이즈: 한 호흡으로 부르는 덩어리) 마무리 끝음들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 이유는 호흡 타이밍이 밀리거나 급해져서 다음 프레이즈가 준비가 덜 된 채로 시작하게 되어, 호흡이 모자라고 성대의 접지가 덜 되어서 소리가 모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모음 중심으로만' 노래하지 않도록 한다. 고음에서 특히 '자음'을 더 잘 발음하고 살려주려 노력하면 더 가볍게 고음이 올라가며 유연성(부드러운 톤)과 지향성(가깝게 녹음됨)이 증가하게 된다.
- '표현'의 측면에서 대중가요 가창이 클래식 성악, 뮤지컬과 다른 점은 '레가토(Legato: 음들을 부드럽게 이어부르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팝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가수가 판단되는 프레이즈만 '강조'의 효과를 위해 사용한다.
- 발라드의 A파트(verse)에서 볼륨을 최소화해서 부르더라도 '자음' 디션이 흐려지면 안된다.
- 발라드 후렴부 직전 두 마디는 결정적인 '디딤돌'같은 역할을 하므로 자연스럽게 좋은 '상승 연결'이 되도록(크레센도crescendo) 살려주어야 한다.
- 마이크의 높낮이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대충 맞추면 안되고, 입을 기준으로 마이크의 중심부가 거의 수평이 되도록 맞추어야 한다. 입보다 높을 경우 Low가 없어서 풍성함이 줄어들고, 입보다 낮을 경우 Mid가 없어서 탁한 톤이 녹음될 수 있다.
- R&B 곡에서 비트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녹음하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비트가 없는 부분(섬세하게 불러야 하는 부분)을 먼저 다 녹음한 후(전체적인 흐름은 꼭 고려), 비트가 있는 부분을 녹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발라드 장르를 녹음할때 잔잔한 1절 verse, 2절 verse, 엔딩 등을 먼저 다 녹음하여 일관된 톤을 유지하고, 맨 마지막에 1절 후렴, 2절 후렴, 브릿지 등 강하게 지르는 고음부가 있는 부분을 나중에(목이 풀린 후에) 녹음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위의 스타일링 사례들은 학생들의 보컬 지도에 있어서 스타일링 개념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조언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가창에 일정 수준의 기준을 갖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 학생들이 자신만의 개

성과 음악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부정적인 피드백 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도록 조안하거나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교수자들이 어떤 특정 장르나 특정 발생 기법을 고집할 때 생기기 쉬우므로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보컬 튜닝과 스타일링

본고에서는 그동안 실용음악 보컬 교육에서 사용해 오던 전통적인 보컬 개념인 호흡, 발성, 공명 등의 전통적인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중음악의 특징을 반영한 고유의 개념과 그 적용 방법론에 대해 '보컬 튜닝'과 '보컬 스타일링'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가창 스타일과 창법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클래식 성악과 뮤지컬 장르와는 달리 대중가요 가수들의 창법과 스타일은 사실상 가수들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가수의 노래는 사운드의 일부로서 녹음 후 믹싱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펙팅과 공간감의 적용을 통해 곡의 음악적 효과에 동화되는 경향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동안 '가창력'이라는 개념이 대중가요 가창에서도 그동안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으나 최근의 대중음악 시장에서 그 중요성은 많이 감소된 것이 현실이다. 그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기존에 가수들의 주 홍보 수단이었던 TV매체의 쇠퇴와 공연 시장의 위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TV에서는 주된 시청자층이 중장년 및 노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트로트 장르가 가장 활발하며 이 장르는 여전히 가창력 중심의 장르라고 볼 수 있다. 젊은 층의 음악감상자들은 유튜브 및 음원스트리밍 방식으로 일상 생활에서 음악을 감상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파를 맞았던 공연 분야에서는 오페라나 뮤지컬이 직격탄을 맞으며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실용음악 보컬 분야도 이제는 순수한 가창력보다는 음악 프로듀싱 및 사운드 디자인의 측면에서 더 접근되어 야만 다른 가수와의 차별성과 개성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르와는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가창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교육과정과 진로 지도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음악 창작자로서의 관점으로 가창을 스타일링하고 창법 및 개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중음악의 본질인 다양성과 개인별 스타일을 최대한 발전시키기 위해 호흡과 발성 등의 보컬에 대한

기본기는 대학 실용음악 교육과정에서 중심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교육과정에 '호흡과 발성', '보컬테크닉'과 같은 일반적인 과목명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컬튜닝' 및 '보컬스타일링'의 개념은 이를 교과목명으로 하기 보다는 다양한 스타일 관련 교과목의 근저 개념이 되어야 한다.

둘째, 클래식 성악 분야의 대학 교육과정의 방법론을 계승하는 일대일 레슨 방식의 '전공실기' 과목을 최소화하여 1학년 과정에만 편성하고, 가창 스타일을 세분화하여 교육할 수 있는 클래스 수업을 개설하여 편성한다. 기존의 대중가요 밴드 양상블을 장르별로 더 세분화하여 추가 편성하거나 대중음악의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분석하고 실습하는 수업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에 연주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퍼포먼스 과목 이외에 음악을 녹음하고 프로듀싱하는 과목의 비중을 늘려 보컬 전공 학생들의 프로듀싱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보컬 학생들이 자신들의 노래를 프로듀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스타일 측면에서 대중성이 있는 노래로 자신의 노래를 형성할 수 있는 감각과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실용음악 보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기존 실용음악 보컬 교육에서 조맹되지 못했던 보컬 스타일 측면을 슈스터만의 스타일 개념을 통해 논의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필자의 새로운 개념인 '보컬튜닝'과 '보컬스타일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실용음악 교육과정에 보컬 스타일 관점에서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학생들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J.S. Lee, "The Establishment Shapes of Applied Music Department in Korean University",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No.12, pp.99-136, 2013.
- [2] J.H. Lee, Re-emerge of Pop Audition TV Program and why?, [Internet] Newsis, c2018 [cited 2018 November], Available From: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04_0000462602, 2018. (accessed July. 20, 2023)
- [3] W.Y. So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Field of Applied Music",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44, No.2, pp.49-74, 2015.
- [4] E.J. Yang, "Analysis of Appropriateness of Standard

- Curricula in Academic Credit Bank System Instrumental music, Applied music and Musical majors in College Degree”, Journal of Music and Theory, Vol.12, pp.21-47, 2007.
- [5] J.P. Lee, “The Studies of the Need for Developing Medium-sized Creative Musical : Focus on the Invigorating the Provincial Medium-sized Theaters”, Journal of Cultural Industry Studies, Vol.15, No.2, pp.39-47, 2015.
- [6] I.D. Joe, “A Study about the Changes in Popular Music and Media Technology”, Korean Journal of Popular Music, No.19, pp.8-28, 2017.
- [7] R. Shusterman, Aesthetics of Style, p.16, Book Korea, 2013.
- [8] X. Lu, “Study on Legato in Vocal Music Performance”,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3, No.4, pp.17-26, 2019.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19.6.13.4.1>
- [9] A. Peckham, Berklee Vocal Techniques, p.58, Hal Leonard. 2004.

오 한 승(Han-Seung Oh)

[중신회원]



- 1999년 5월 : Berklee College of Music (Bachelor's Degree)
- 2003년 8월 :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실용음악 석사)
- 2016년 8월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공연예술학 박사 수료)
- 2006년 9월 ~ 현재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계열 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 문화예술, K-Pop, 음악미학